

平和について話合う婦人の集会

アジア各国で参加、御殿場で

平和について話合う婦人の集会。が去る二月二十五日より二十八日までの四日間、静岡県御殿場のYMCA東山荘にて開かれた。これは、米国の教会婦人連合(CUW)プロテスタント諸教派、カトリックを含む「コアズウェイ」と称するキャパバンを組んでアジア諸国を廻り、各国の持つ問題をその国の婦人と接し、話し合うことにより、自分たちが今なにをしなければならぬかと問い、活動のよき示唆となるよう学びつつ旅していたものである。話には聞いていたが、確かに彼女たちは金持の暇つぶし旅行団とは性質を異にして、さすが米国内で反戦、人種差別撤廃、公害反対運動、社会福祉促進のために働いている婦人たちがだけに、五十名一人ひとりが皮ふの色を問わず真の内的美しさをしつとりとたたきだ

「平和について話合う婦人の集会」に集まったアジア各国の婦人たち①と在日大韓基督教女伝道会の役員たち②

어머니의勉強会

西南地方女伝道会

報告、研究の段階で留めておこうとする態度の差に、日本に住まざるを得ないわれわれとして再考を余儀なくさせられたことは否めない。また在日同胞の問題が子期しない形でとりあげられたわれわれとしては、世界にも類を見ないといわれるこの在日韓国人問題が、国は違えど理解する友はどの

にでもいるのだという喜びを味わうと同時にわれわれ自身が自分を含めて同胞の生き方そのものを覚めた目でみきわめ、体質そのものをある存在として愛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責任をいたく感じさせられた。

三月三日(日)にはこの会のため来日された本國代表

悪臭로 선교에 支障

武庫川教会서 呼訴

尼崎市今北に 자리잡고 있는 본교회 산하 武庫川教会 바로 옆에 兵庫縣에서「武庫川流域公共下水道今北小袋ポンプ場」을 건설하려고 計劃하고 있어 말 생이 되고 있다.

이 일을 위해 兵庫縣에서 이미 旧日本油脂(株)社宅을 買収하여 撤去시키고 着々進行中에 있으나、同ポンプ場이 바로 武庫川教会 옆에 건설되면 그惡臭로 말미암은 公害로 武庫川の 宣敎에 큰 支障을 줄뿐 아니라 同建物을 上 당한 높이를 가지게 되므로 教会와 그 周辺住民의 日照權마저 侵害하게 되는 것이다.

武庫川教会信徒들과 隣近住民은 이미 同ポンプ장 건설을 反對하고 나서고 있다.

尼崎市今北에 자리잡고 있는 본교회 산하 武庫川教会 바로 옆에 兵庫縣에서「武庫川流域公共下水道今北小袋ポンプ場」을 건설하려고 計劃하고 있어 말 생이 되고 있다.

이 일을 위해 兵庫縣에서 이미 旧日本油脂(株)社宅을 買収하여 撤去시키고 着々進行中에 있으나、同ポンプ場이 바로 武庫川教会 옆에 건설되면 그惡臭로 말미암은 公害로 武庫川の 宣敎에 큰 支障을 줄뿐 아니라 同建物을 上 당한 높이를 가지게 되므로 教会와 그 周辺住民의 日照權마저 侵害하게 되는 것이다.

武庫川教会信徒들과 隣近住民은 이미 同ポンプ장 건설을 反對하고 나서고 있다.

이름 금년초부터 同職責을 맡아 서움을 往來하며 일해왔으나 이번엔 WSCF사무국을 정리하고 家族과 함께 서울로 가게 되었다. 말은바 責任에 두

在日大韓基督教總會
財政局長 金 光 洙
總 務 崔 京 植

韓國基督教史出版祝賀會

關東地方會와 總會서

本紙를 통하여 이리紹介된 바 있는 東京教會興會와 總會에서 祝賀會를 열었다.

이 책은 韓國基督教史上의 새로운 史料發掘과 他宗教와의 關係에서 폭넓게 문제를 다루었으며, 宗敎의 眞實한 洞察로 物議를 일으키며 또 好評을 받고 있다.

우리 總會에서는 興牧師의 研究와 勞苦를 아끼는 意味에서 간소하나마 意義 깊은 出版記念會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①關東地方會에서
四月六日 午後二時부터 日本基督教會館에서

②總會에서
四月十七日 午後五時부터 大阪KCC에서 열린다.

會費는 各々 二千五百円인데 著者의 서명이 있는 冊子代와 記念會費가 이에 포함된다.

준공 堂式

川崎教會堂 桜本保育園

그간 건축중이던 川崎教會堂 青丘社桜本保育園의 獻堂式과 竣工의 祝賀宴이 三月二十四日 오후 三時同教會堂(川崎市川崎區桜本一八二二番)에서 行해된다. 登壇물은 約七千円을 들여 完成되었으며, 禮拜堂과 保育園의 配置와 相關關係에서「現代에 있어서의 宣敎의 新樣相」을 보여주는 現代式건물이기도 하다.

五月會議獻金과 教役者隱退積立金 送付에 關한 再要請

主안에서 貴教會와 信徒들의 平安과 發展을 기도드립니다. 總會傘下에 있는 모든教會가 物心兩面으로 協力하여 宣敎活動을 推進하여 온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받들어 주실것을 믿고 다음 의事項을 再次 부탁드리오니, 積極協力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記

(1) 크리스마스獻金中 五月會議 再要請金

今年五月, 在日韓国人問題를 中心으로 世界各國代表(70名)가 모여 會議을 가지는데, 基金目標額이 三〇〇萬 円입니다. 昨年 크리스마스 獻金中 三分의 一을 마치고 했으므로, 協力을 바랍니다.

《納入한 教會》

大阪二〇、〇〇〇	大阪北部九、〇〇〇
名古屋三〇、〇〇〇	神戸一〇、〇〇〇
岐阜三〇、〇〇〇	東京七〇、〇〇〇
布施二〇、〇〇〇	熊本三〇、〇〇〇
岡山一〇、〇〇〇	横須賀一三、〇〇〇
桑名一〇、〇〇〇	京都一六、〇〇〇
広島一〇、〇〇〇	下関二〇、〇〇〇
札幌二、五〇〇	横濱三〇、〇〇〇
水島五、〇〇〇	堺五、〇〇〇
調布一〇、〇〇〇	小倉五、〇〇〇
西南女伝道青年會九、五〇〇	福岡四五、〇〇〇
西新井三一、二〇〇	折尾一九、〇〇〇

(2) 教役者隱退積立年金

(一九七三年五月부터 實施하고 있음)

全教役者及職員의 每月俸給中 3%를 積立하여 基金으로 하여 隱退教役者를 돕는 일입니다. (例, 月8萬円×3% = 二、四〇〇円) 잘 부탁드립니다.

一九七四年三月 日

나의 信仰 간증

横浜教会長老 金連伯



나 一九一六년三月三日
일, 金丁石氏의 七男姉妹
막내아들로 本籍地 韓國
濟州道北郡翰林面挾才里一
八〇八番地에서 태어났음
니다。

入信

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은 다 내게로 오
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
게 하리라】(마태 11장 28절)
내가基督教에 入信하
게 되기는 一九三六년분
長男 安弘(現在在日大韓
基督教牧師)이 병으로만
미암아 여러 病院에 다녔

三·一運動의 교훈

東京教会牧師 吳 允 台

入院까지 했으나 效果를 보지 못하고 근심과 고민을 하던 끝에 教會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橫濱教會는 朱寬容牧師님이 視務하였는데 나는 安弘을 朱牧師님께 데리고 갔읍니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소원은 할수만 있거든 아이의 병을 낫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읍니다. 朱牧師님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하면 「나으리라」고 하므로 그때는 「바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바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기까지 하였읍니다. 朱牧師님은子弟가 長成하여 工夫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전도사 혹은 牧師를 시킬 마음으로 키우는 것이라 하므로 나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였읍니다. 그때 牧師님은 열심을 다하여 확실하게 평안함을 얻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읍니다. 그날부터 아침저녁 하루에 두번씩 기도를 받고 사흘만에 완전히 낫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후 나의 마음엔 「나치게 될 기회가 되니 나는 것이지 기도함으로 낫지는 안하였으리라」고 의심이 들기도 하였으나 이미 교회에 꾸준히 나가기로 작정한바 마다 2개월간 꾸준히 교회에 나가던 어느날 특별히 설교에 恩惠를 받고 감격에 잠겼읍니다. 그후 더욱 열심을 내어 교회에 나가게 되고, 마음의 의심은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親戚과兄弟들이 하나님을 믿는

다면 一家兄弟의 「의복」을 속에는 돈벌기 위한 의
 꿇는다고 하면서 뽀박해
 왔읍니다. 「안 믿는다면 좋
 거니와 믿는다면 너의 몸
 의 뼈를 빼어 아버지께 드
 리고, 살을 빼어 어머니
 께 드리고 너만 하나님
 을 믿는지 마음대로 하
 라」고 모친 구박을 받
 았으나, 十日後에 身體
 도 完全하였고, 내마음엔
 오히려 그들을위하여 눈
 물로 기도하기에 이르렀
 읍니다. 그리하여 그후 1
 개월쯤되던 어느날 새벽
 무시경에 역시 천천들의
 건강과 회개를위해 기도
 하게 되었는데, 뽀박해오
 는 그들에게 오히려 축
 복을 받게되는 심정으로
 기도가 나오며 내마음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면서
 너무 기뻐서 공중에 날
 아다니는것 같았읍니다.
 내마음의 감격과 기쁨
 이 넘쳐움을 牧師님께말
 씌드리니, 牧師님께서 이
 번에 洗礼를 받으라 하
 시므로 세례를 받기에이
 르렀읍니다. 그때 나의 간
 음은 「이전에 저의 마
 음속에는 돈벌기 위한 의
 심과 한편 마음에 근심
 이 찼는데, 교회에 나오
 게 된후 뽀박하는 兄弟
 들을위하여 오히려 기도
 하는중에 눈물로 되는 큰
 감격속에 예수님의 구속
 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욕심과 근심걱정이 없어
 지고 기쁨이 충만하였읍
 니다」고 고백하기에 이
 르렀읍니다. 牧師님은 하
 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
 어 주신것을 확실히 믿
 고 세례를 주었으니 앞
 으로는 죄를 범치말며,
 하나님의 택하신 子女로
 성령이 一生 함께하는 생
 활을 하리라는 확증을내
 게 주셨읍니다.「나를 믿
 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
 는것과같이 그의 배에서
 수가 강같이 흘러나올것
 이라」(요한 7장 38절)
 海運業에서 眞인경
 험
 三개월후에 나는 船主
 船長으로 大風이 부는 바
 다를 향해 目的地에 나
 가려 하였으나 큰파도로

해운업에서 얻은 경험

말미암아 도저히 갈수없	고 피난하면서 「광풍이	물아친 갈릴리 바다와 우	리 주님의 奇蹟」을 생	각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택	한子弟이거든 이 어리	석은 종에게도 갈질을순	탄게해 달라」고 하였읍	니다. 그럴때마다 全能者	의 앞에는 티끌만도 못한	人間으로서의 미약함을아	외면서 全의으로 매달리	게 되며 하나님의 指示	와 음성을 기다리게되었	읍니다. 2 회3 회기도하며	간절히 요청할때 하나님	의 指示는 있었고 하나	님의 말씀을 순종할때,	아무리 大風과 파도가높	아도 어느새 바람과 파	도가 잔잔하여 目的地에	무사히 가게되는것이었읍	니다.	一九三八년도에 지금 橫	浜教会가 서있는 자리에	서 住宅5棟과 教会堂및	土地2百10坪을 買得하였	으며, 그때 橫浜教会信者	數는 80余名이고 各處에	전도소가 8개처 있었읍	수없는 감사와 기쁨에 넘	다. 女子神學生도 20名	이나 있었는데, 第二次大	戰이 甚하게되어 信者가	故國으로 피난하기에 이	른것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없이 마지막판에 갔다	가 해방되어 數年後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며, 그때	는 벌써 祖國은 解放되	어, 戰前에 日本에 살던	나도 수용소에 갇히게되	었습니다. 그때 親兄님이	橫浜에 살고계심으로 석	방운동을 要請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사흘동안 금	식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매	달렸읍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엔 기쁨이 넘쳐, 얼	굴에 회색을 띄고 기뻐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	들은 나더러 이틀이나금	식하더니 정신이 이상하	게 된모양이라고 수근거	리기조차하였읍니다. 금식	기도한지 사흘째되던 아	침9시반쯤에 저를 석방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모두가 열렬평한 가운데	놀랐고 나는 기도를 응	답해주신 하나님께 말할	수없는 감사와 기쁨에 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戰後の教会再建

수용소에서 나와서 敎	공음으로 말	가 본즉	나와서	수용소에서
이마아 불타버렸으며, 빈	곳아났읍니다.	풀만	곳아났읍니다.	이마아 불타버렸으며, 빈
교友들은 橫濱市南区中村	에 세방을 얻어 예배	교友들은	橫濱市南区中村	에 세방을 얻어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당시 神	子生이던 成丁萬氏引導로	교友6名이	에배드리고있	子生이던 成丁萬氏引導로
있읍니다. 게다가 집주인	이 집을 비워달라고 조	교友6名이	에배드리고있	子生이던 成丁萬氏引導로
며닌 教會터위에서 교회	건축을위하여 기도하기시	작하여 하루에 두번 朝	夕二個月간 기도하던	五〇년二월의 어느 아
삼, 눈은 2尺이나 쌓였	으나, 눈위에 었디어 기	도하며 안타까이 아되는	나의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나타나 환상중에 새	지를 교회를 바라보	게되었읍니다. 그다음 주	교회건축을위해 교우	축헌금을 작정하게되었
의논하는 자리에서	돌아온것을 감사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친 獻金이 百倍나 되어	게 되었으며, 손님께 바
년후에 새로 배를 만들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게된것을 부끄럽게 생각	시나마 근심하고 원망하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잠
본즉 1개월에 7~8万	円 收入을 올리게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잠	시나마 근심하고 원망하
타(貨切)하여 事業하여	돈족 1개월에 7~8万	円 收入을 올리게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잠
가 하며 원망하는 마음	이런일을 당하게 하시는	도 있고 또한 눈물로 기	도하며 지내는중 뜻밖에	도 日本 사람의 배를 차
가 하 며 원 망 하는 마 음	이런 일을 당 하게 하 시 는	도 있 고 또 한 눈 물 로 기	도 하 며 지 내 는 중 뜻 바 께	도 日 本 사 람 의 배 를 차
인 약한 마음으로 人間	아 下船하게되어 맞지않	해오고 있었는데, 6개월	동안이나 意見이 맞지않	아 下船하게되어 맞지않
는 親兄의 배를 타고일	하였읍니다. 그때 마침나	는 親兄의 배를 타고일	하였읍니다. 그때 마침나	하였읍니다. 그때 마침나
자과 마음의 작정을 가	지게되어 7万円을 약속	자과 마음의 작정을 가	지게되어 7万円을 약속	지게되어 7万円을 약속
을 담당해야 되겠다는자	담당해야 되겠다는자	을 담당해야 되겠다는자	담당해야 되겠다는자	을 담당해야 되겠다는자

13년전의 負債

해마다 年末 크리스마스가 돌아올때면 나와 관이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빚진 것이 있으면 청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으려고 노력하여 왔으나 人間인 로 어떤일은 모르고 지갈때도 있었읍니다. 그 때에 13년간이나 新造의 씨트代金未払을 모르고 지나다가 어느 크리스마스에 곰곰히 생각하니 끝에 花咲町森野船具店の社長을 만나忘却의 사과하고 代金を 갚아 사과하였더니,社長도 놀라 帳簿가 다整理되니 모르겠으니, 그대로 돌아가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생각난 이상 그냥 돌아올수가 없었고 韓國基督教信者로서 더욱 그럴수없다고 버티어時勢에서 3万5千円을 갚고 돌아왔읍니다.後日 그社 앞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돈을 年末相助運動으로

奈良新聞을 통해 養老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
러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다고, 우리 민족의 四千年
史上에 나타난 모진 風
雲은 隨楊帝의 大軍을 擊

破한 乙支文德을 爲始한다. 이 花郎道の 정신
 여 ①三國時代의 唐의 侵으로 新羅는 統一했고,
 入 ②高麗時代의 蒙古侵 唐의 侵略을 막았으며,
 入 ③李氏朝鮮時代의 王 高麗는 蒙古의 侵略을 견
 辰亂 ④李朝末葉의 日韓 디었고 李舜臣은 日本海
 合併: 이렇게 數次 浩랑 軍을 擊滅했으며 百折不
 이에게 물러가도 정신을 屈의 정신으로 侵略하여
 차렷기에 오늘에 獨立國 오는敵을 용서없이 처서
 家가 유지하고 있음이다. 물리치는 武士의 정신임
 속담 그대로 호랑이에게 三·一 獨立
 물렸으나 정신을 차렸으 萬歲를 부를때 맨주먹을
 므로 살았음이다. 들고 일어나 日本의 數
 그런데 55年前的 三· 一 獨立을 동을 기념하는理
 一獨立운동들 기념하는理 由는 무엇때문인가? 특히
 由는 무엇때문인가? 특히 海外日本에서 이날을 기
 海外日本에서 이날을 기 念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그것은 三·一 정신을 배 忘쳐서 三·一 정신은民
 우자는것입니다. 三·一 정 族의 團結입니다. 李朝五
 신을 배우지 않으면 이 百年에 우리民族은 党派
 땅에서 살지 못한다는것임 로 나뉘어 싸웠읍니다.
 나다. 그것은 儒敎思想이 빚어
 그럼 三·一 정신은 무 年 그릇된것이었지만, 祖
 었었을까? 上으로부터 피속에 흘러
 첫째 花郎道の 정신임 내리는것은 團結의 정신

이었고 ○團結의 정신은 州五山學校에 訪問케 했을 때
 一 大有事之秋에는 發揮되 니다. 警察當局의 注意를 피
 는 것으로 三・一獨立萬歲 하여 玄相允氏는 鄭魯湜氏
 는 華族의 으로 一致合力 氏에게 부탁했습니다. 鄭
 했던것입니다. 魯湜氏는 金道泰氏에게 五
 세대로 우리는 三・一 山에 가서 李承薰氏에게
 정신속에서 숨어있는 民 崔南善氏말을 傳達해 주도
 族의 義憤과 사랑을 배 록 要求했습니다. 金道泰
 우려하는것입니다. 民族代 氏는 九日에 定州에 到
 表 33人은 그저 쉽게 된 着했습니다. 五山學校를 찾
 것이 아니고 그들은 當 아가는 途中 金道泰氏는
 時 무서운 日本官憲의 눈 朴賢煥氏를 만나 代身身
 을 속이면서 彼此에 連 당신이 가달라고 부탁하
 絡을 取했습니다. 가령孫 니 朴賢煥氏는 서슴지않
 秉熙氏(天道敎代表)와 基 고 李承薰氏를 만났습니
 督敎代表 李承薰氏와의 連 다. 李承薰氏는 崔南善氏
 絡을 取하여 民族代表 33 를 직접 만나면 비밀이
 人을 選定한것을 생각하 漏洩될까 염려하여 宋鎮
 여본다면 孫秉熙氏가 崔 禹氏를 만났습니다. 宋鎮
 南善氏에게 基督敎代表人 禹氏의 활동으로 李承薰
 物과 접촉할것을 청탁하 氏와 孫秉熙氏가 만나게
 고 이청탁을 받은 崔南 氏에 되었습니다. 또한 仏敎의
 善氏는 李承薰氏와 交涉 代表 韓龍雲氏와 白相奎
 하기로 作定한후 2月7 氏를 加入케했으며 天道
 日에 玄相允氏를 平北定 敎代表로 33人中에 連名

한자들을 選出하는 것은 孫 達。申永求君은 하루밤사 秉熙氏가 맡았고 基督教 代表로 連名한 16人은李 承薰氏가 책임지고 選出 했으며, 이일을 계획하여 겨우 2月28日에까지 整 備가 되었던것입니다。그 러므로 우리는 오늘 三 一 정신에서 義憤과 사 랑의 정신을 배워야 하겠 음니다。

네째로 우리는 죽도독 忠誠하는 奉仕의 정신을 배워야 하겠읍니다。三・一 獨立宣言書는 崔南善氏가 짓되 日本사람집 二層에 서 新聞紙에 落書하는것 처럼 하면서 그집 사람 들 눈을 속이어 가면서 지었고 그宣言書를 印刷 하는 책임은 普成社長李 鍾一氏가 졌는데 李鍾一氏는 金弘奎氏에게 부탁 했고 金弘奎氏는 자기部 下申永求에게 부탁했읍니

다。申永求君은 하루밤사 이에 2萬1千枚를 印刷 했읍니다。그宣言文을 天道教側、基督教側에서서여 러 사람들이 비밀리에 動員하여 하루밤등안에 慶尚道、忠清道、全羅道黃海道、咸鏡道等各都市에 보 내었고 서울에서는 延禧 專門學校學生金元璧、普成 法律商業學校學生康基德、京城醫學專門學校學生韓偉 健氏에게 부탁하여 바고 다公園에서 뿌리고 獨立 萬歲를 부르게했으며 午 後2時에 孫秉熙以下33人 代表(4人결석)가 明月 館에 모여서 韓龍雲氏가 獨立趣旨를 설명하고 萬 歲三唱을 하였읍니다。

三・一獨立運動은 韓國 民族의 실자는것으로 일 어난 運動입니다。韓國이 獨立하고 韓國民族이 自由를 얻는것은 時代的要

이것이 人類共通의 것으로가 아니라 「生存權」을 위한 것이므로 最後 適當한 發動이므로 目 的을 이루기까지 獨立宣言文의 精神을 배워야 합니다.

①花郎精神으로 勇敢하게 싸워야 하겠고,

②民族的으로, 在日61萬 生存權을 위하여 宗教思想을 超越하여 하도록 奮起해야 하겠고,

③在日同胞全體가 義憤 사람으로, 同族愛로彼

此에 生命과 財産을 걸고, 生存權을 위하여 全力을 다하여야 하며,

④犧牲奉仕의 정신으로 彼此에 도와야 합니다.

日本에 사는 우리에게 제일 急先務가 무엇입니까? 제일 必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人權입니다.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政治運動이 急先務가 아닙니다. 思想運動도 第一次의 것으로 必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必要한 것은 民生問題이며, 民權問題입니다. 그러므로 이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는 居留民團傘下에 모여야 합니다. 居留民團만이 이問題를 第一重要視하며 第一次의 힘쓰는 團體인가 담입니다.

者韓國人 金連伯氏가 13
 年 전 未 弘金을 想起하여
 게 되었다는 사실도 아
 니라 報道되었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
 합을 일깨워주시고 채
 주심을 알고 감사하니
 우리 橫濱教會는 금년에
 建物を 繕고 金君植牧
 님 주동으로 社会福祉法
 마루다會打越保育院을
 築하려 합니다. 사람의 힘
 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
 심으로 一致 단결하여 주
 님의 榮光을 위하여 온갖
 勞苦를 다 바치고자 기도
 면서 두서없는 간증이
 코 나의 자람이 아닌
 의 부족한 고백임을 아
 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現住所 橫濱市中区石
 町四一五九一二)
 九七四年 봄